

# 관광체험 일번지 전북으로!

### 중국사무소, 상하이 최고 대학 '푸단대'에 전북 홍보 전주한옥마을·무주대권도원·진안마이산 등 큰 호응

전라북도 중국사무소(소장 이지형, 이하 중국사무소)가 중국 상하이 최고의 대학인 '푸단대' 캠퍼스에서 전북 알리기에 나섰다.

중국사무소는 최근 열린 '2019 한국인의 날' 행사에서 전라북도 홍보부스 및 한지공예 체험을 실시, 상하이 푸단대 학생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인지도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사무소는 특히, 국가주도의 국제사업이자 한중산업단지 한국측 지역인 새만금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중국사무소 관계자는 "푸단대는 상하이 뿐만 아니라 베이징, 칭화대와 함께 중국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 대학이다"며 "이 학생들이 몇 년 후

중국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갈 것으로 보고, 전라북도의 100년 먹거리인 새만금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전주한옥마을, 무주대권도원, 진안마이산과 홍삼 등 가장 한국적인 곳인 전라북도의 주요관광지 및 체험프로그램을 소개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특히, 대권도원에서의 체험프로그램과 한옥마을의 한복, 한옥, 한지 등 한류 문화 체험 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사무소는 특히, 한지 등 만들기 체험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중국사무소 웨이보 계정을 팔로우하게 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

도록 유인했다. 푸단대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유학생 김효연(21)씨는 "한국인의 날 행사여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한지 등 만들기 체험이 가장 인기 있어서 전라북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사무소는 상하이 유명관광지 중 한 곳인 '신천지(新天地)'에서 한지공예 체험을 통해 전북을 알렸다.

한편, 이날 행사는 주대한민국상하이총영사관, 주상하이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상하이지사와 전북, 경기도, 강원도, 전남, 경남 등 5개 지자체 상해대표처가 한국문화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실제 관광객 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진성 기자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반대한다”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관계자들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18일 전주시방법원 앞에서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 익산시-용산구, 우호협력도시 MOU체결, 다양한 분야 협력 사업 추진

국내 대표 철도중심도시인 익산시와 용산구가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철도중심도시라는 장점을 가진 두 자치단체는 앞으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18일 시청에서 정현을 시장과 조규대 시장의, 성장현 용산구청장, 장정호 용산구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호협력도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도시 모두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이 관통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표 철도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

으며, 궁극적으로 익산역을 시작으로 용산역을 거쳐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는 뜻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지역발전 위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종 분야의 교류협력 △유라시아 철도역사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농업 교류협력 등을 위한 행정 지원과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익산시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역사문화도시이자 식품산업의 메카인 익산시와 우호도시의 연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다"며 "앞으로 양 도시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해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에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가 익산시와 용산구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겠다"며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를 용산구와 함께 지역발전의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중남부에 위치한 용산구는 23만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4년 용산역 민자역사가 개통되면서 호남선의 시발역이자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남산, 이태원, 한강공원 등 국내 대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각광 받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농산경위, 어민 소득 창출과 소상공인 마케팅 강화 방안 모색

### 전북 민물고기 시험장·소상공인 희망센터 현지의정활동 펼쳐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8일 제38회 정례회 중 원주 민물고기시험장과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에 대한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오전에 방문한 민물고기시험장은 1947년 설립되어 1989년 대이자수지 인근으로 이전, 전라북도 내수면 어족 자원의 유지와 보급을 통해, 전북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이끌어 왔다.

고소득 어족 자원인 새우류(관정거미새우, 흰다리새우) 양식법을 개발하여 내수면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 2)은 환경과과 및 남획으로 인해 민물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어업인 소득 보전 및 멸종위기어종의 내수면 어업 유지를 위한 시험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만기 위원(고창 1)은 "양식어종의 질병 예방을 위한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며, "무항생제 양식 및 양식시설 소득제 저감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기화 위원(군산 1)은 "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양식장 수질 관리가 중요하므로 수질관리 기술이 어업인에게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후에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개소한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방문했다.

소상공인 희망센터는 전주시 여의동에 위치한 (구)보건환경연구원을 리모델링해 총 82개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받으면서 초저 창업비용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동안 센터 운영을 통해 지난 8년간 500여 명의 창업자를 배출해 오고 있다. /김진성 기자

김철수 부위원장(정읍 1)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에게 작지만 필요한 공간이 지원되고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매년 30여 업체만이 새로이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아쉽다면서, 입주업체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오광근 위원(전주 2)은 센터를 졸업한 업체가 8년간 500여개로 적지 않은 업체라, 졸업한 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을 계기로 농산경계위원회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민물고기 시험장의 연구 성과가 도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고소득 어종 및 양식시설 관리 기술 개발과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가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사업확대 기회 제공에 있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교육대, 국가교육회의 교육포럼 성황리 마쳐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는 최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김서홍홀(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 등에서 미래사회,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한·러·일 국제

학술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김우영 총장, 전주 관내 초등학교 교장, 대학·기관 관계자와 학생, 지역 학부

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강연은 한국, 러시아, 일본 3개국 공동으로 개최되었고, 1부 기초강연, 특별강연에 이어 2, 3부에서는 3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총 14개 주제 발표, 4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은성기자

## 더 쉽고 빠르게 국민과 소통한다

### 靑,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

靑와대는 18일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 환경을 넓힌다.

靑와대는 이날 오후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靑와대'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靑와대는 "더 쉽고 빠르게 국민과靑와대가 소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靑와대는 앱을 통해 이슈와 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한다. 앱은 ▲靑와대가 전합니다 ▲靑와대 국민청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 삶이 바뀔니다 ▲靑와대 관람 신청 등의 메뉴로 구성됐다.

또 국민청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 순위 별·분야별·답변 대기 등 청원 현황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청원 링크의 경우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참여도를 높였다. My국민청원 에 들어가면 직접 작성한 청원과 동의한 청원 등을 모아볼 수 있다.

정부정책 언론 보도에 대한 팩트체

크·설명자료를 따로 열람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주거, 교육·보육, 복지, 문화 등 맞춤형정책 정책 사용 후기, 정부정책에 대한 자료도 볼 수 있다.

아울러靑와대는 이 앱을 통해 대통령 임기 중 일정 관련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화면 및 사진 게재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현재는 오늘 있을 '2019국민과의 대화'와 내주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이 올라와 있다.

앱은 애플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 토어에서 '靑와대'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설치 가능하다. /뉴시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학장(강정원)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차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터키양복점 건물)  
(H·P: 010-2078-4810)

**명강사 초청 무료 공개 특강**

**도민 여러분!**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재미있고 중요로움이 있는 특강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감성과 표현의 시대, 이미지시대, fun의 시대, 소통의 시대에 본 강의를 통해 재미있고 행복하며 유익한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 용혜원



강사 : 김 양 옥

- 시인, 베스트셀러 작가
- 유머 자신감 연구원장
- KBS TV 아일마당 등 인기 강사
- 2009년 한국강사협회 추천 명강사
- 강의주제: "딱 한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 면접 실기 강사
- 한국스피치&미디어원 컨설팅 대표
- KBS TV 아일마당 출연 등
- 강의주제: "건강을 위한 스피치"

◎ 일 시 : 2019. 11. 21.(목) 오후 7시  
◎ 장 소 : 참예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칠길굴다리 앞)  
(장소주소: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전주완주김제축협)  
◎ 문의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

한국스피치·면접·리더십 컨설팅  
전북도내 스피치과정 원우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